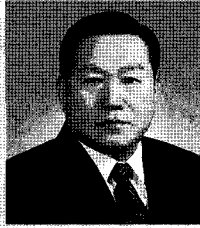


# 초심자를 위한 양봉사양관리

-지난호 이어서-



가야양봉원 대표 김상태

## 2. 봉군 합봉법

- 1) 봉군이 약군이 되어 번식이 늦을 때 약군의 벌을 다른 봉군에 합해주어 자격군으로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반드시 약군의 왕봉이 붙지 않도록 정확히 검사한 후 합봉을 시켜주어야 한다.
- 2) 왕봉을 없앤 후 1~2일 후에 합봉합이 적절하다. 왕봉을 하다보면 전 봉군이 강약군이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도봉이 일어나는 경우를 생각해 왕봉가는 봉군을 균등히 조절하는 관리가 필요하다. 그 뿐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왕봉이 분실되었을 경우 필히 다른 군으로 합봉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대로 두면 동봉 산란으로 왕봉이 되어 폐망하게 된다.
- 3) 합봉은 기본적으로 추운 날씨에 섯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끼어 유밀이 안될때 또는 우천시는 삼가하는 것이 좋고 약한 부왕소비를 소비대수가 많은 강군에 붙혀 합봉해야 된다.
- 4) 다음과 같이 여러 방법의 합봉법을 소개하겠다.
  - 가) 양봉기구의 합봉쌍을 구입하여 삽입하는 방법
  - 나) 분무기를 사용하여 봉군의 벌 붙은 소비에 직접 물을 분무하여 합봉하는 방법(G-3 농약해독제 사용으로도 가능)
  - 다) 약제(안티프라민, 톨파스 등)로서 소비광에 칠하여 냄새를 자극해서 합봉시키는 방법
  - 라) 유밀이 왕성할 때 격리한 또는 사양기 넘어로 두었다가 다음날 동화된 후에 사양기를 제거하고 합봉하는 방법
  - 마) 초연기를 사용하여 연기를 질게 뽑어 봉군이 의식을 잃은 순간 혼연 합봉 방법
  - 바) 신문지에 구멍을 내어 간막이로 합봉하는 방법
  - 사) 많은 봉군이 있는 봉장에서는 다량 유밀시에 약군은 강군 자리에 강군은 약군 자리에 옮겨도 된다.
- 5) 이상과 같은 방법으로 합봉해왔는데 날씨가 좋고

유밀이 잘되면 그대로 붙혀 주어도 무난하다. 합봉이 잘되는 것은 유봉이 소비에 많이 붙었을 때 용이하하며 외역봉이나 지배봉이 많으면 싸우게 되어 소문앞에 죽어나온다.

- 6) 양봉가는 합봉후에 세심히 소문을 원자리로 돌려 주어야 한다.
- 7) 충분한 사양을 한 후에 재합봉을 시도해야 될 것이다. 그대로두면 안정된 봉군에 왕봉까지 있을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서 관찰해야 된다. 늦가를 추울때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합봉이 잘 된다. 필자는 지금까지도 합봉은 별 신경 쓰지 않고 소비에 왕봉을 확인 후 사양기 너머로 두었다가 하루만에 사양기를 빼내고 그대로 붙이는 것이 편리하고 상쾌라고 생각한다.

## 3. 왕봉 유입법

- 1) 봉군을 관리하는 동안 신왕을 제대로 양성하게 하지 않고 노왕이 되어 약군을 면치 못하면 왕봉을 경신하여야 강군을 유지하며 소기의 채밀향상을 얻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이동을 하며 자주 채밀을 시도하고 봉군이 유독히 사나운 군도 유입이 가능한 봉군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봉군의 왕봉이 불량하여 다른 신왕으로 바꾸어 넣어주는 것을 말하며 이 방법은 양봉기의 제일 어렵고도 중요한 과제이다.
- 2) 주위 여건
 

비오는 날 섯바람 부는 때는 불리 무화기 또는 꽃 부족시에도 불리(충분한 저밀보유) 무왕 상태로 1일 이상 경과후 유입한다. 유입할 봉군에 왕봉을 제거한 후 8시간 가량 기다렸다가 다른 신왕을 유입시킨다. 이때는 냄새가 틀리면 왕봉을 공격하는 수가 있다. 소문에서 동봉이 죽어 나오면 내부에서 소동을 일으키게된다. 유입한 왕봉을 애워싸고 묻쳐있는데, 이는 유입한 왕봉이 좋다고 하는 벌과 또는 싫다고 하는 벌이 분리되어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때 관리자는 하이프를(소납도)로 들어내어 흙이나 물을 부어 피지게 하여 왕봉을 찾아내어 왕봉 안전유입기에 가두어 소비 위에 둔다. 2~3일 후 벌 몇마리만 붙여 식량을 공급할 때 조용히 왕통 문을 열어준다.
- 3) 유입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겠다.

- 가) 유입할 봉군에 왕봉을 제거하던지 소비 1때에 왕봉을 붙여 피신시켜 무왕군을 만든 후 1일 지난 후 신왕봉에 물을 흠뻑 묻혀서 뚜껑을 열지 않고 모서리를 약간 들고 개포 밑으로 슬쩍 넣는 방법.
- 나) 왕봉이 붙은 유봉소비와 유입할 봉군의 맨가장 소비에 유봉이 붙은 소비와 붙이는 방법. (이때 분무기로 물을 날개에 적시도록 분무함이 용이)
- 다) 봉군에 산란 및 유충소비가 전혀 없는 소비에 왕봉을 제거 후 6~8시간 지나면 왕봉유입이 용이한 방법
- 라) 벌을 빈 봉상에 쏟아 붓고 벌이 놀라게 한 후 공소비를 넣어 어두운 장소에 옮겼다가 왕봉을 준다.
- 마) 봉군에 구왕봉을 제거한 후 허룻밤이 지나 내검하여 왕대 조성을 전부 없앤 후, 복통을 사용하여 왕봉을 가두어 2~3일 동화한 후 왕봉을 풀어 주어 유입한다.
- 바) 소문을 막고 뚜껑을 열어 혼연한 다음 왕봉을 넣고 다시 소문으로 혼연 후 1분간 소문을 닫았다 열어준다.
- 사) 구왕을 없앤 후 하루가 지나면 아침 일찍 왕봉을 찾기 위해 소문앞에 동봉이 날게된다. 이때 봉상을 내검하여 조성왕대를 제거한 후 왕봉 안전 유입기에 넣어 유입하는 방법.
- 아) 양봉 기구인 소비 친화광에 왕봉을 유입하는 방법. 왕봉 유입 후 1시간 후는 안전하나 5~6시간 후는 공격 우려 성이 있다. 그리고, 3일 후에 공격하여 사망시키는 일이 있으며 4일 후는 완전유입 성공이다.
- 4) 지금까지 구왕을 없애고 신왕을 유입하는 조건이 제일 어려우며 같은 존재의 왕봉 즉, 구왕과 구왕 또는 신왕과 신왕, 처녀왕과 처녀왕 사이 유입은 비교적 무난하다.
- 5) 이상과 같은 여러 방법으로 유입이 가능하며 양봉가는 5~6월 사이 4군상을 이용하여 다량의 교미를 마친 신왕봉을 보유하여 왕년에 전 봉군을 신왕봉으로 교체하여 왕성한 강군을 유지해야 어느 밀원이던, 어느 다른 봉장에 가서도 도봉을 맞지 않고 다수화 유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 6) 어느 관리 기술보다 이 왕봉유입이 제일 어려운 과제이며 관찰이 필요한 기술임은 자타가 공인할 것이다. 필자의 경험으로 여러 방법을 강구하여 유입하였으나 끝내 받지 않아 한통의 벌을 전부 소문앞에 털어서 도로 들어가게 하여 신경질 관리를 한 바 있다.
- 7) 왕봉유입은 주로 밤꿀 밀원에서 많이 행하여 지는데 요즘은 토종밤꿀이 드물어 대신 밀원인 대추꿀

에서 행하면 가능할 것이다. (경북지방)

대추는 가물어야 꽃이 분필이 되는데 금년 같은 해에는 아카시아, 밤꿀, 대추꿀 전부 부진한 유밀 상태라 이럴수록 벌은 강군을 유지해야 다른 밀원에서도 유밀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밀방에 저밀은 꼭 잡아주어야 하며 급수와 화분(대용화분)도 급여하여 주어야 될 줄 믿는다.

- 8) 고갈된 밀원에서 투기사업은 더욱더 양봉가의 가슴을 졸이게 되는 현실이다. 취미 양봉이면 부업으로 화초검 정서관리를 요하나 전업양봉이면 밀원 쟁탈은 물론 경제면에서 타산이 좌우되는 우리로서는 승패의 기로에서 두갈래 길을 걸어야만 된다.
- 9) 왕봉유입은 이외 여러 양봉가들의 독특한 방법이 있을 줄 믿는다. 필자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소개하였으니 각자 잘되는 방향으로 취했으면 한다.

#### 4. 도봉 방지법

- 1) 양봉을 한다면 도봉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야 할 것이다. 다수군을 한 봉장에서 사육한다면 똑같은 군세를 유지한다는 것이 턱 어렵다는 것은 다 알 것이다. 그렇다면 양봉가의 세심한 관찰로 도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자질을 가져야 할 것이다.
- 2) 한가지의 도봉이 전군을 해칠수 있는 위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중히 내검할 때도 도봉벌이 날아와 날개를 펴면서 소비 위로 밀방을 노린다. 그것을 알고 양봉가는 그 벌을 포착하여 즉시 잡아 죽여야 한다.
- 3) 꿀벌세계는 내가 일을 못하던가 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엄격한 군기가 확립되어 끝까지 일을 하다가 죽게된다. 꿀을 훔치려다가 싸움이 벌어진 것을 도봉이라 할 수 있다.
- 4) 전 봉군에 유달리 벌이 심하게 왕왕거리고 있는 봉군을 자세히 관찰하면 문지기 벌에게 공격을 받아 소문 앞에 죽은 벌을 볼 수 있다. 도봉이 들어갈 때는 배가 훌쭉하고 나갈 때는 배가 부르다. 이때 양봉가는 도봉벌을 즉시 발견하여 강구책을 써야 할 것이다. 날개를 펴고 몸을 흔들며 눈을 붉힌 벌이 도봉벌임을 알 수 있다.

#### 5. 원인과 시기

가) 밀원화 부족(무하기)

나) 화밀 분필이 적을 때

다) 밀원이 끝나서 부주의 채밀할 때

라) 유밀이 안될때 부주의 사양시

마) 무왕군을 오래 방치할 때

바) 강약군을 오랫동안 같은 봉장에 두었을 때

사) 봉군관리시 장시간 내검 또는 소동을 시켜 놀았을 때

## 6 방지법

- 가) 소문은 축소(심하면 별 한마리정도로 출입허용)
- 나) 마른 풀로 가린다.
- 다) 5분 사이 한번씩 혼연
- 라) 분무기로 물을 뿌린다.
- 마) 봉상을 앞뒤로 돌려 놓는다.
- 바) 거울을 앞 판에 붙인다.
- 사) 소문을 막고 출입구 별을 죽인다.(3회)
- 아) 심할때는 소문을 막고 암실 또는 2km이상 이동하여 피해군을 안정시킨다.

## 7. 피해군 조치

- 가) 해가 진 다음 도봉이 없을 때 사양시킨후 소문을 막고 4~5일간 암실속에 두었다가 사양을 시킨 후 저녁때 내놓고 다른 봉군에 떨어진 곳에 둔다.(이때 소문은 축소시켜준다.)
- 나) 도봉이 많이 침입할때는 피해 받은 벌들은 4km 이상 떨어진 장소로 옮기고 대량사양후 약 10일 이 지나서 봉장으로 옮긴다.
- 다) 도봉 발생시 소문 앞에날오는 벌몸에 밀가루를 뿌리면 피해군과 가해군을 알 수 있는데 이때 서로 위치를 교환할 수 있으나 이는 위험한 관리법이다.
- 라) 도봉이 사전에 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거듭

당부하는 바이며 항상 질량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저밀을 주어야 하며 소문 간격을 최소화 줄여야 된다. 식량만 충분하면 도봉, 양봉을 함께 사육하여도 도봉은 있을 수 없다.

- 마) 원동 사양 재료도 냄새가 나지 않는 백설탕이 좋으며 유색체는 냄새가 나서 도봉의 위험이 있다. 채밀시도 아침 일찍 시작해서 빠른 시간내 마쳐야 된다. 모든 도봉은 시작할 때 막아야지 이미 진행된 후는 막기 어렵다.
- 바) 사양은 꼭 해질 무렵에 실시하여야 된다. 사양기가 새넛가 바깥에 흘러서도 안 된다. 낮으로는 공동사양을 피해야한다. 두 마리의 싸움은 두 마리다 죽게 된다. 세심한 관찰로 하절기에 있는 무화기때 도봉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내 봉장에서만 도봉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근 타 봉장의 벌이 와서 내 봉장에 도봉 해 가는 수도 있다. 이로써 도봉 방지법 이론을 마치며 혹시 의문이 생기면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053-425-1484)

-다음호에 계속-

# “말벌 킬러 판매개시”

말벌 때문에 아직도 고생하십니까?

한번써보시면 탁월한 효과를 보고 입을 벌리실 겁니다.

늘 새로운 기술을 전도하는 용수 양봉원에서는 가을철 말벌피해의 고민 해결을 위해 소문 급수기에 이어 이번 에 신제품 말벌 킬러를 만들어 공급하여 드리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지역의 양봉원이나 본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용 수 양 봉 원** TEL : 02)451-3550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34 상록수 APT 109-503